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5호

스포츠윤리센터

2천 300만원 금품 수수·인권 침해한 체육지도자들 중징계

김영성 SBS NEWS 기자

**저임금·과로에 신음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월급 41만원' 강요받은 경주시청
철인3종 선수들과 뭐가 다른가**

박동희 칼럼

“프로·실업 선수 49.9% ‘인권침해 경험 또는 목격’ 응답”

장보인 연합뉴스 기자

스포츠춘추

“임직원 인권교육 받아라” 인권위, 장애인 차별한 KIA에 권고

박동희 스포츠춘추 기자

스포츠인권침해

젊은 배구선수의 비극과 남은 사람들의 숙제

김종건 스포츠동아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2천 300만 원 금품 수수, 인권 침해한 체육 지도자들 중징계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도하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체육 지도자들에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센터는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2022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조처를 했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선 스포츠 인권 소위원회에서 16건, 스포츠 비리 소위원회에 7건 등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이 가운데 18건이 의결, 5건이 속행됐습니다.

윤리센터는 A 학교 B 종목 지도자 4명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들 모두에게 '중징계' 의결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윤리센터는 피신고인 4명은 "학생 선수의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학생 운동부 지도자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전지 훈련 수고비나 리그 우승 격려비, 설·추석 명절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2천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최동호 심의위원장은 "일부 학교에서 체육 지도자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품 수수는 진학 비리로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선수의 인권을 침해한 C 지역 D 종목 지도자 2명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윤리센터는 "피신고인들은 체육관에서 훈련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 등으로 가격했고, 이를 묵인·방조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처분' 의결된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되며, 문체부 장관은 해당 종목 협회에 의결대로 처분할 것을 권고합니다. '수사의뢰'가 된 사건은 윤리센터가 직접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속행'된 사건은 담당 조사관의 추가·보완 조사를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윤리센터는 2020년 9월부터 이달 25일까지 505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287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해 심의위원회에서 114건을 의결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업무개시
2020. 8. 5. (수)

저임금, 과로에 신음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월급 41만원' 강요받은 경주시청 철인3종 선수들과 뭐가 다른가

2020년 7월, 고 최숙현 선수가 생전 지도자, 동료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체육계는 경악했고, 언론은 이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당시 최 선수 취재를 진행했던 스포츠춘추 취재진이 경악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취재진은 최 선수에게 가해졌던 폭력만큼이나 경북 경주시청 철인3종 선수들의 열악한 연봉을 알고서 경악했다.

스포츠춘추가 입수한 '2019년 경주시청 철인3종팀 입단 계약서'에 따르면 13명의 선수 가운데 5명이 연봉 800만 원 이하였다. 5명 가운데 3명은 연봉이 500만 원에 불과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천590원이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9만310원. 연봉 500만 원이던 세 선수의 2019년 2월 월급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정확히 41만3천460원이었다. 더 경악스러운 건 이들의 연봉이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분할지급됐다는 사실이다. 스포츠 종목 가운데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다는 철인3종에서 두 달은 월급없이 지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폭력과 성추행이 난무하던 경주시청 철인3종부에서 그래도 꿈을 이루려고 월급 41만 원을 감수한 채 이를 악물고 뛰었을 선수들. 이것이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숨겨진 이면이었다.

-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노동법 위반 감시하라”, 스포츠윤리센터 직원들 “문체부가 그런 말 할 자격 있나” -

스포츠윤리센터. 정부가 제2의 최숙현을 막겠다고 만들었다. 체육계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폭력, 노동법 위반 등 각종 인권 침해와 비리를 조사하고, 예방하겠다고 출범한 조직이다. 2020년 8월 윤리센터 출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경주시청 철인3종 운동부처럼 최저임금 이하를 강요하는 실업 운동부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다”며 “윤리센터에 몇 번이고 ‘노동법 위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과연 문체부의 요청을 윤리센터는 잘 이행하고 있을까. 결론만 말하자면 윤리센터는 제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면 선수들은 언제부터인가 윤리센터부터 찾고 있다. 정작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문체부가 '제2의 경주시청'이 됐다는 사실이다. 선수들에게 월급 41만 원을 강요했던 경주시청 철인3종 운동부처럼 문체부는 윤리센터에 저연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강요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릴까. 정부는 윤리센터를 대한민국 스포츠 인권의 수호신이자 비리 엄단의 상징처럼 홍보했지만, 속을 살펴보면 출범 때부터 '급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실제로 윤리센터는 태생부터 저임금을 전제한 조직이었다.

2020년 출범 때 윤리센터 예산은 31억9천1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애초 인건비로 배정된 예산은 3억6천100만 원.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1.3%에 지나지 않았다. 윤리센터 관계자 A 씨는 “당시 직원이 26명이었다. 26명의 전체 인건비가 3억6천100만 원이면 직원들이 공평하게 나눌 때 연봉이 1천388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며 “문체부도 ‘우리가 봐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사업비로 배정됐던 돈에서 3억5천만 원을 전용해 인건비에 보탬다”고 증언했다.

사업비를 전용해 인건비로 보탬어도 직원수에 비해 전체 인건비는 턱없이 모자랐다. 정부는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021년 윤리센터 예산은 53억1천200만 원으로 전해보다 21억1천210만 원 늘었다.

7억1천200만 원이던 전체 인건비 역시 19억3천8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윤리센터 직원들은 다소간의 임금 인상을 기대했다. 하지만, 윤리센터 직원 B 씨는 “임금 인상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9%에 그쳤다”며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은 여전히 휴직자와 퇴직자 발생으로 생긴 잔여금으로 겨우 충당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늘어난 인건비만큼 직원이 14명이나 증가한 탓도 있었지만, 40명의 직원 연봉과 각종 수당을 19억3천800만 원으로 해결한다는 게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것이 체육계의 중평이다. 윤리센터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또 한 번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늘어난 금액은 정확히 8억7천300만 원이었다.

B 씨는 “2022년 윤리센터 예산이 61억8천500만 원으로 늘었으나 인건비는 고작 2억3천600만 원이 오른 21억7천400만 원만 배정됐다”며 “문체부가 전체 인건비는 짊짊 늘려주고, 직원은 5명이나 증원하도록 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 문체부와 월급 41만 원 강요한 경주시청 철인3종 운동부, 도대체 뭐가 다른가 -

스포츠윤리센터 직원들은 “지금 인건비로는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은 여전히 부족하고, 퇴직충당금 적립도 예산 부족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열악한 건 임금만이 아니다. 근무 환경도 최악이다. 윤리센터 직원 43명이 209평의 사무실을 나눠 쓴다. 윤리센터 직원 C 씨는 “이사장, 사무국장, 운전기사 대기실, 화장실 등을 빼면 1인당 2평이 채 안 되는 공간을 쓴다”며 “직원 휴게실은 고사하고, 상담실도 방 하나가 전부”라고 밝혔다.

윤리센터의 핵심 업무는 조사다. 경악스러운 건 핵심 업무가 진행돼야 할 조사실도 하나라는 점이다. C 씨는 “윤리센터엔 피해자, 가해자 대기실도 없다.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 가해자가 마주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센터를 방문하면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고 고백했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윤리센터 담당 직원 1명이 체육인 40만 명의 교육을 책임진다.

직원 C 씨는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가 전산화되지 않아 지난해 6개월 동안 한 명의 직원이 1천700건이 넘는 징계사실 유무확인서를 손으로 직접 발급해줬다”며 “윤리센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배정된 전산직 직원도 단 한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기본 연봉 인상 0.9%는 다른 공공기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윤리센터 1인당 평균 임금이 다른 체육기관에 비해 떨어진다는 걸 부정할 생각은 없으나 최저연봉 수준이라는 주장은 다소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사장, 국장, 실장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에 대해선 설명이 따르지 않고 있다.

경주시청 철인3종 운동부는 선수들에게 월급 41만 원을 강요했다. 그래놓고서 ‘경주시청은 비인기 종목에 투자한다’는 생색은 멋지게 냈다. 선수들이 저임금을 강요당하는 사이 고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감독 연봉은 4년 사이 28%나 올랐다.

묻고 싶다. 경주시청 철인3종 운동부와 문체부가 뭐가 다른지. 도대체 일은 누가 하고, 생색은 누가 내는지. 스포츠윤리센터 직원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성과의 열매는 도대체 누구 차지인지. 대한민국 체육계는 여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2월 국회에서 추가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프로, 실업 선수 49.9% ‘인권침해 경험 또는 목격’ 응답”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은정)의 '2021년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참여한 프로·실업 선수 중 절반 가까이가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9천여 명과 초·중·고등학생, 프로·실업팀 선수 9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윤리센터는 "초·중·고등학생 1만7천951명과 프로·실업 선수 7천47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인권침해 경험·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초등학생 선수 13.8%, 중·고등학생 선수 15%, 프로·실업 선수는 49.9%로 나타났다.

프로·실업 선수 3명 중 1명은 학생 선수 때보다 스포츠 인권침해가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윤리센터는 이들이 학생 선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운동 경력이 길고, 접촉하는 지도자·선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 초·중·고등학생 선수들은 '언어폭력' 경험·목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언어·신체 폭력 등 물리적 인권침해에 가장 많이 노출된 반면, 프로·실업 선수들은 불합리한 연봉책정이나 불공정계약 등 환경적 인권침해에 노출됐다고 응답했다.

윤리센터는 인권피해 피해를 경험한 선수 2명 중 1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초등학생 선수의 경우 '대응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답이 38.1%로 가장 높았고, 다른 응답 집단에선 '보복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인권침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발생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사생활 침해'로 꼽혔다. 이번 조사 문항에는 임신과 출산, 가족 돌봄 등 여성 관련 피해 항목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프로·실업팀 여성 선수의 경험·목격 사례로는 '생리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훈련 참가'가 63.9%로 가장 많았고, '생리 휴가 등 사용 제재'(34.7%), '결혼·출산 관련 불이익'(20.8%)이 뒤를 이었다. 학생 선수 학부모 대상 실태조사에서는 학부모가 느끼는 자녀 대상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는 9천90명이 참여했으며, 학부모 중 79.7%는 '체육계 성폭력'이, 76.2%는 '체육계 금전적 비리'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로 본인 또는 자녀가 '언어 및 신체, 성적 폭력 등 물리적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한 비율은 20.6%, '금전 요구나 진학, 추천 상의 비리 등 환경적 인권침해를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답한 비율은 16.9%였다. 이에 대해 윤리센터는 "최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관련 내용의 미디어 노출이 증가해 실제 경험·목격률보다 우려와 걱정이 커진 것으로 풀이한다"고 부연했다.

윤리센터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재 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장애인에 대한 입장권 현장판매 허용하고 온라인
예매 웹접근성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월 18일 000000 사장 및 한국야구위원
회(이하, '케이비오(KBO)') 총재에게 프로야구 입장권
판매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현장 예매가 가능하도록
장구를 개선하고,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장
이들을 위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였
다.

“임직원 인권교육 받아라” 인권위, 장애인 차별한 KIA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을 차별한 KIA 타이거즈 구단에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엔 장애인들의 온라인 티켓 예매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1월 28일 인권위는 “야구 입장권 판매 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프로스포츠를 경기장에서 직접 관전(직관)하는 장애인이 많지만, 장애인이 경기장 안팎에서 겪는 각종 어려움과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스포츠계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가 직관을 통해 스포츠를
즐기려는 장애인에게 희망적인 뉴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체 텍스트' 제공없이 5분 만에 결제하라는 프로야구 온라인 티켓 예매 앱. "장애인은 야구장 오지 말라는
소리"-

인권위에 진정을 낸 A 씨는 지체장애인이다. A 씨는 2020년 10월 KIA 타이거즈 경기를 보려고 광주
기아타이거즈 구장을 찾았다가 헛걸음질을 쳤다.

구장에 있던 직원으로부터 “현장에서 티켓을 팔지 않는다. 온라인 예매를 통해서만 티켓을 살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A 씨는 구단 직원 답변에 따라 현장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매를 시도했다. 그러나
해당 앱에선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예매에 성공하지 못했다.

인권위 조사에 참고인으로 응한 시각장애인 B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B 씨는
평소 스마트폰의 '보이스 오버' 기능을 이용해 여러 앱을 능숙하게 사용해왔다. 야구경기 티켓 예매도 보이스
오버 기능을 활용해 예매하려 했다.

그러나 KIA 티켓 예매 앱은 다른 앱과 달리 팝업 창 이미지와 좌석 선택 절차에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았다. 갖은 노력 끝에 장애인 휠체어석을 선택했으나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엔 제한 시간에 막혔다.
KIA 홈페이지 결제 시스템의 결제 제한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았던 것.

B 씨는 인권위에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체 텍스트를 모두 들어야만 결제가 가능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으면 5분 이내에 예매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구매와 온라인 예매를 모두 실패한 A 씨는 인권위에 “온라인 접근과 앱 사용이 쉽지 않을 수 있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없이 경기 관전 티켓 현장 구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권리구제를 바라는 진정을 냈다.

다음 장 계속

- 온라인 예매만 허용했던 KBO. 장애인에 한해 현장 예매 가능하도록 했지만, 구단은 여전히 온라인 예매로만 티켓 판매 -

A 씨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KBO, KIA 구단 의견을 청취했다. 인권위의 최초 조사에서 KBO는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개인 간 밀접 접촉이 증가할 수 있는 현장 티켓 구매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매만 허용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KIA 구단 역시 “KBO 매뉴얼에 따랐을뿐”이라는 말로 온라인 예매로만 티켓 판매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KBO는 인권위 조사가 들어가자 2021년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수정했다. ‘티켓 판매는 여전히 온라인 예매만 허용하되, 장애인의 경우 온라인 예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애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현장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KBO의 입장 변화와 달리 KIA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KBO 매뉴얼에 따라” 온라인 예매로만 티켓 판매를 한다던 KIA는 정작 KBO가 장애인을 위해 현장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때 이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1년 프로야구 정규리그 개막 후 인권위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광주 기아챔피언스파크에선 장애인에 대한 티켓 현장 판매가 원천봉쇄돼 있었다.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에도 ‘현장 구매 불가’란 문구만 적어놨을 뿐 ‘장애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장 판매를 한다’는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게 인권위 조사 결과다.

- 인권위 "KBO와 각 구단 홍보 업무 담당자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

2020년 A 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인권위는 2022년 1월 초까지 조사를 펼쳤다.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의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오랜 조사 끝에 KIA 구단의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와 제20조를 위반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기장에 관중 입장을 허용한 상황에서 예매만을 온라인으로 제한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할인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온라인에서 예매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원 대면을 통해 장애인 증빙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 현장 구매와 차이가 없다”며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이라는 KIA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KIA 구단 사장에게 '장애인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할 것'과 '임직원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KBO 정지택 총재에겐 '장애인에게 현장에서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기장 현장 등에서 해당 안내문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과 'KBO와 각 구단 홍보 업무 담당자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관계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2021년 프로야구 정규시즌 기간에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구장 현장 예매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셨거나 구매를 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야구팬이 계시다면 dhp1225@spochoo.com로 연락 바랍니다. 또는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매장을 운영하셨던 장애인 매장주가 있으시다면 앞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발리볼] 젊은 배구선수의 비극과 남은 사람들의 숙제

6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의 경기 전 기자회견은 다른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배구선수의 비보에 모두가 침울했다. 근조 리본을 달고 회견장에 들어선 삼성화재 고희진 감독은 “(김)인혁이 얘기는 경기 뒤에 하고 싶다. 우리는 경기를 해야 하니까.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우리보다 유가족이 더 힘들 것이다. 어린 나이에... 마음이 힘들다”고 말했다.

눈물을 억지로 참고 있던 고 감독은 “전 국민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선수들도 내색하지 않고 잘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선수들에게 ‘경기는 경기답게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경기를 마치면 선수단 모두가 조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극에 빠진 원정팀을 대하는 OK금융그룹 석진욱 감독은 “같이 생활한 적이 없는 선수여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안타깝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경기를 중계한 이세호 KBSN스포츠 해설위원은 “김인혁 선수의 어머니도 주부배구교실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등 배구에 애정이 많았다. 잘 아는 분인데 이런 일이 닥치다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OK금융그룹은 경기 개시 직전 고인을 추모하는 짧은 묵념 시간을 마련했다...

V리그는 2년 전에도 젊은 여자선수를 빨리 떠나보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에도 대중의 무분별한 비난에 무방비로 노출된 젊은 선수가 마음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27세의 짧은 생을 마쳤다. 고인은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첫 번째 비극이 생겼을 때 V리그를 포함한 배구계가 나서서 감정노동자 신분의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차일피일 미룬 것이 안타깝다. 한국배구연맹(KOVO)과 구단들이 2차례의 비극적 사건을 교훈 삼아 빨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비슷한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아쉽지만 배구의 인기가 커지면서 독버섯도 함께 자라고 있다. 배구 커뮤니티에는 선수들을 헐뜯는 것에 인생을 건 듯한 사람들도 많다. 이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V리그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 이제는 선수 개인의 일상이 된 소셜미디어(SNS)에는 직접 비난의 글을 보내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선수들에게 이를 무시하라고 강요할 게 아니다. 이들을 퇴출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건강한 상식을 가진 팬이 앞장서야 한다. 선수의 인권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누구라도 신고해서 KOVO가 즉시 응징하는 단호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금의 문제 상황은 끝낼 수 없다. 삼성화재는 4일 호소문에서 추측성, 비방성 글이 아니라 고인의 배구에 대한 열정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고 앞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기자는 2019년 11월 8일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10개의 서브에이스를 기록한 뒤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했던 고인을 더 기억하려고 한다. 부디 비난과 악플이 없는 그곳에선 행복하게 배구하고 마음 편히 지내기를 기원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스포츠 지도자 한류 바람? 해외 진출 한국 감독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30_0001743163&cID=10503&pID=10500

김연경부터 이청용까지... '스포츠 스타' 모시는 코스닥 상장사들, 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2816282349748>

'스포츠 강군 실현' 보은군 전국단위 대회 유치 선택과 집중

<https://www.news1.kr/articles/?4569680>

설 연휴 동안 보기 좋은 스포츠 경기... 벤투호 경기부터 V리그·전통 씨름까지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12616008065751>

"배구나, 농구나, 씨름이냐... 월드컵 축구지" 설 연휴 스포츠 뭐 볼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2609210004298?did=NA>

스포츠토토코리아, 여자축구 경기 대상 최초로 프로토(Proto) 발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32201656&mediaCodeNo=258>

"체육인이 바란다" 20대 대선후보들이 스포츠 공약을 밝혔다[현장리포트]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201260100162700010116&servicedate=20220125>

스포츠 전지훈련 메카로 부상한 해남군

<http://news.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20126000907>

강원도 겨울스포츠 메카 명성 재확인... 지난해 1억3천만명 방문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7058000062?input=1195m>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